

총선 코앞 정개특위 해법 못 찾는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비난 고조

구곡담 폐지 가능성 높아 예비후보·지역민들 반발

4·11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구편차 불균형에 따라 호남지역 선거구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인구하향선에 걸린 영남 지역 선거구를 우선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2차 디데이(D-day)인 16일까지 합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농촌지역구를 없애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바꿔 담양·곡성·구례지역구를 없애는 협상안을 여당 측에 제시, 지역민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후보뿐 아니라 지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

핑을 갖고 그동안 당론으로 주장해온 4+4(경기 파주, 강원 원주, 경기 용인 기흥 분구, 세종시 신설+담양·곡성·구례, 경북 영천, 경남 남해·하동, 경북상주 통폐합)에서 한 발 물러선 3+3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경기 용인 분구를 양보하고 지역구 3석(영남 2석과 호남 1석)을 줄이는 안을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는 “어제(15일) 새누리당이 지역구 3석과 세종시 1석을 늘리는 대신 영호남에서 각각 2석씩을 줄이자 안을 최후 통첩해 왔다”며 “영호남을 2석씩 나누자는 논리라면 국가 예산도 영호남이 반반씩 나눠 갖고, 공무원도 반반씩 나눠야 한다. 무지의 계산법이라 받아들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주성영 정개특위

간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만든 인구편차 표에 따르면 영남권은 6%, 호남권은 18%가 과대평가돼 있다”며 “영호남이 인구에 비해 의원 정수가 많은 과대평가 지역으로 결론이 났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면, 인구편차에 따라 호남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원주, 파주, 세종시 선거구를 늘리는 기본 전제하에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안 ▲영호남에서 1석씩 줄이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안 ▲영호남에서 2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담양·곡성·구례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는 지난해 31일 “농촌지역 담양·곡

성·구례 선거구 폐지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고위당직자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당 지도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보름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재두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제안은 원칙과 기준, 선거법 체계나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국회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법체계와 법 논리를 위반하여 선거구를 확정한다면 이것은 게리맨더링을 뛰어넘은 국민에 대한 정치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예비후보 측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선거구를 없애려 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을 누가 대변하겠느냐”며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11 총선을 앞두고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용화(왼쪽) 광주 서구 갑 무소속 예비후보가 택시기사로 변신했고,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가 LED 어깨띠를 매고 야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택시 기사로...LED어깨 띠로... 튀는 예비후보들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뒤통수에는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용화 광주 서구 갑 무소속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내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로 변신해 민생투어 형식의 선거운동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택시기사들과 즉석 간담회도 열고 법인택시 갑차 지원법안 제정,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육성법안 개정 등의 업계 현안을 청

취했다. 정 후보는 앞으로 3~4차례 더 택시 민생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 택시운전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획득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 북 을 예비후보는 야간 선거운동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어깨띠를 활용하고 있다. LED 어깨띠가 등장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겨울철 낮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LED 어깨띠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해자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복지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체험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선 공천접수 마감
여야 최대 격전지는

낙동강 벨트·광주 서울 등 곳곳서 대혈투 예고

여야가 4·11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하면서 주요 격전지의 대진표가 열개를 드러냈다. 상징성이 강한 서울의 주요 지역구와 야권의 거센 도

전을 받고 있는 부산의 ‘낙동강 벨트’는 벌써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여야의 대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중로구=3선인 새누리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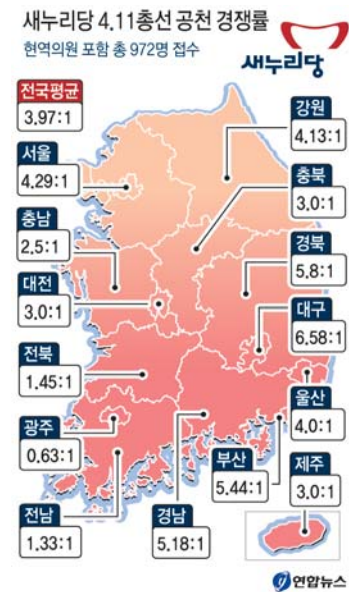
박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정권교체’를 모토로 출마를 해 빅매치 지역이 됐다. 새누리당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장수 당 대변인을 지낸 조운선 의원이 출마표를 던진 가운데 대표적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종로까지 야당에 내준다면 대선에서 청와대 안방을 나누는 모양”이라며 공천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을=여당의 아성인 이곳에 민주당은 정동영, 전현희 의원이 출마표를 던져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한미FTA 전도사’인 김중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락공천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영 전 경찰청장, 권문용·맹정주 전 강남구청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공천을 신청해 내부 경쟁이 뜨겁다. ◇부산 사상구=야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출마하면서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부상했다. 여당 텃밭에 대한 친노(親盧)의 공세라는 상징성 외에도 총선은 물론 12월 대선구도의

판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전락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대표적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수임 전 경실련정동생협 대표, 박에스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손수조 전 시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부산 북·강서을=3선의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맞붙어 접전지로 부상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는 허 의원이에게 부산 민심이 호응할지 관건이다. ◇광주 서울=현역인 5선의 김영진 의원의 지지도가 높지 않게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놓고 4명의 도전자가 나선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은 채 현지에서 “23년 동안 노란 일색 땅(민주당)에 파란 깃(새누리당) 하나만 띄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공천 신청 마감 광주 5명·전남 15명 도전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신청에서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명의 출마 예정자가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남 제19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자를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에서 총 20명의 출마 예정자가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8개 선거구 중 동구와 광산 갑과 을 등 2개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의 후보신청을 해 0.6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12개 선거구인 전남은 광양과 무안·신안 선거구를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15명이 후보 신청을 해 1.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3명의 출마 예정자가 후보를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흥·보성 선거구를 비롯한 ▲해남·완도·진도 ▲함평·영광·장성 등 3개 선거구는 각각 2명씩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나머지 6개 선거구는 단수 후보로 등록됐다. 9개 선거구인 전북은 16명이 신청해 1.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 중 전주 완산 갑과 완산 을, 고창·부안 등 3개 선거구에는 각각 1명씩의 후보 신청을 해 ‘나 홀로’ 경선을 펼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공천 신청자 명단
◇광주 ▲서구 갑=성용재(64·광주시당 부위원장) ▲서구 을=이정현(54·18대 국회의원) ▲남구=노덕린(56·남구 당협위원장) ▲북구 갑=서세일(69·전 담양군청 관리계장) ▲북구 을=김광만(51·전 청전그룹 비서실장)
◇전남 ▲목포=천성복(49·목포시 당협위원장) ▲여수 갑=김중대(56·민주평통자문위원) ▲여수 을=심정우(53·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순천=서영주(40·순천만 천일염 대표) ▲나주·화순=문종안(67·전 광주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담양·곡성·구

례=정재하(64·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 ▲고흥·보성=신용수(67·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장귀석(58·한국 경총 전남 수석부위원장) ▲장흥·강진·영암=김종열(51·UPT 일본 평화대사)·전경진(51·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채경근(57·뉴라이프 광주·전남연합 장흥군 대표) ▲해남·완도·진도=명목재(66·전 1·3대 해남군의원)·조강현(51·전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도지사후보 공명선거 대책위원) ▲함평·영광·광성=이상선(65·전 육군 군수관리학교장·육군 준장)·한남일(55·전 한나라당 정치발전특위 위원)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2-17호

남악신도시 및 대불주거단지 공급안내

1. 공급개요

○ 공급 대상 용지 (단위 : m², 백만평)

구 분	공급용도	필자수	필자규모	분양예정가	공급방법	입찰보증금
남악신도시	중심상업	1	1,278	1,662	경쟁입찰	입찰금액의 50%이상
	도시지원	1	54,114	18,940		
대불주거단지	일반상업	5	730~2,818	242~1,045		

○ 입찰 신청자격

- 지역 및 자격제한은 없으며 1인 1필지 이상 또는 2인 이상이 1필지에 신청할 수 있음.

○ 대금납부조건

구 분	용 도	대금납부방법
남악신도시	중심상업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일시납부(4개월)
	도시지원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일시납부(4개월)
대불주거단지	일반상업	일시납부(18개월)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신청 및 입찰서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2012. 02. 28(화) ~ 03. 02(금) (09:30 ~ 17:30)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012. 03. 05(월) (10:00)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등록 (17:00 예정)
계 약 체 결	2012. 03. 06(화) ~ 03. 08(목) (10:00 ~ 17:00)	전남개발공사 8층 고객맞이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 및 우선선화(061-280-06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개발공사
JEONNAM DEVELOPMENT CORP.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 **080-285-06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판동 242 전남개발빌딩 8층